

국민소득 3만 달러 '눈 앞'...내수경기는 '꽝꽝'



수출 의존도 높아...반도체 등 ICT 산업 기댄 성장만 가계소득 격차 갈수록 벌어져 국내 경제 양극화 가속

올해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수시장 냉각과 산업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어 국내 경제 성장 기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2006년 2만 달러를 기록한 뒤 12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이미 2만 9,745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따져보면 2만3,433달러로 추산된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다. 이를 국민총소득에 평균 환율 '1,090.88원'과 통계청 집계 인구를 반영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243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이르

기까지 건정성에는 적잖은 의문이 생긴다. 소비·투자 등 내수의 성장 기여도(전기 대비)는 3분기 -1.3%포인트로, 2011년 3분기(-2.7%포인트) 이후 가장 작았다.

내수의 빈자리는 수출이 메웠다.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1.7%포인트였다. 이런 흐름은 점점 심화했다. 내수 기여도는 1분기 1.2%포인트에서 2분기 -0.7%포인트가 됐고 3분기 마이너스 폭이 더 커졌다.

산업별로도 온도차가 크게 나타났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생산 증가율이 올해 1~3분기 전년 대비로 두 자릿수인데 비 ICT 산업 생산 증가율은 0~2%대에 그쳤다.

특히 올해 3분기 ICT 산업 증가율이 11.3%로 2011년 3분기 이후 최고로

기록했으나 비 ICT 산업 증가율은 2009년 2분기(-1.2%) 이후 최소인 0.7%에 그쳐 선명한 대조를 이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웃고 중소기업은 주춤했다.

올해 2분기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으나 중소기업은 7.3%로 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소득 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3분기 기준으로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년 전보다 7.0% 감소했다.

1분위 가구 소득은 1분기 -8.0%, 2분기 -7.6%에 이어 올해 내내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차상위 계층인 2분위(하위 20~40%) 소득도 올해 3분기 연속 줄었다.

반면 5분위(상위 20%) 소득은 3분기 8.8% 늘어나는 등 올해 내내 전체 가구 중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올해 국내 경제 양극화의 주 배경으로는 반도체·수출 위주의 성장 기

반도체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해 경제 성장률에서 착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기계, 건설, 자동차, 철강, 조선 등 다른 주요 산업은 올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가운데 건설분야 하강이 가파르다. 올해 3분기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6.7%로 외환위기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52시간제가 도입됐지만, 취업자 증가폭이 급감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커졌다.

지역 경기도 주력 산업 상황에 따라 온도차가 크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위기상황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의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고용, 투자를 줄였고 이는 가계소득·소비 부진으로 연결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의 속도 조절 실패도 거론된다.

/김영민 기자

고령자 전화통화 보험 가입 내년부터 45일내 철회 가능

내년부터 고령자가 전화 통화로 보험에 가입하면 청약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화(TM)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상품의 장단점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화 보험 모집은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전화로 이뤄지는데, 권유단계에서는 상품 장단점 적극 설명하고 가입 의사를 밝힌 후 진행되는 청약단계가 돼서야 단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가입 후 청약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연합뉴스

통계청 'e-지방지표' 서비스 제공

통계청이 지역 통계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 지역단위 서비스인 'e-지방지표'에 대한 시각화 서비스를 국가통계포털에 제공한다 밝혔다.

2008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e-지방지표'는 지역의 발전상황을 파악하고 과학적 지역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200여개 지표를 인구, 건강, 교육, 환경 등 12개 분야로 분류하여 시·도 단위로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은 기존의 통계표 위주의 정형화된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송수영 기자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거래소 심사 임박

오늘 기업심사위 가능성...연내 결론 날듯

상장회사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생사를 결정할 한국거래소의 본심사가 임박해지면서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기업심사위원회(이

하기심위) 구성을 최근 마쳤으며 이르면 10일, 늦어도 이만 주 중에 기심위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심위 위원들의 일정 조율 문제로 아직 첫 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이르면 10일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테디베어 코트로 올 겨울 따뜻하게 롯데백화점 광주점 4층 여성복 의류 GGPX매장에서는 올 겨울 젊은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테디베어 코트'를 선보이고 있다. 테디베어 코트는 말 그대로 테디베어 인형 같은 질감의 원단을 사용하여 따뜻한 느낌을 주며 보온성이 우수하다. 가격은 29만8,000원./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지역 워킹맘 1년새 6천명 줄었다

월 200만원도 못 벌어서...자녀 많고 어릴수록 고용률 ↓

광주지역에서 자녀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킹맘'이 1년새 6,000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을 하고있는 '워킹맘' 가운데 절반은 월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지역별 고용조사 부가항목'에 따르면 4월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15~54세 여성 근로자는 287만1,000명으로 지난해 4월기준으로 2만7,000명

(0.9%) 줄었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 내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 근로자는 9만 5,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6,000명이 감소했다.

근로자 감소와 함께 지역 내 18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또한 전년 대비 3.1% 하락한 58.2%로 집계됐다.

'워킹맘'의 고용률은 자녀 수와 연령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18세 미만 자녀가 1명인 여성의 고용률은 57.9%였다. 그러나 자녀가 3명 이상인 여성

의 고용률은 52.1%로 5.8%나 차이를 보였다.

일과 자녀육아를 어렵게 병행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열악했다.

전체 '워킹맘'들의 임금수준을 보면 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37.6%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미만은 11.5%였다. 절반 가량이 월 200만원이 안되는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남은 '워킹맘'이 5,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고용통계과 한 관계자는 "워킹맘을 열악한 고용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 등 문제도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영 기자

다스코 한상원 대표 금탑산업훈장 영예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 증대에 매진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하순에 분사를 둔 다스코(주) 한상원 대표(사진)는 전국 기업인들중 5명에게만 수여된 금탑산업훈장(국가산업발전기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제55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한국 수출 증대를 이끈 수출기업과 유공자들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삼성전자(주) 사상 최초로 900억불 수출의 탑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고 SK하이닉스(주)가 250억불, ㈜네오텔, 한국바스프(주), 현대케미칼(주), 대한유화(주)가 10억불탑을 받는 등 작년보다 111개사가 늘어난 1,264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수출 유공자 부문은 양결 삼성전자(주) 부사장, 이효 ㈜노바인터내소빌 대표이사, 장만호 ㈜이노피아테크 대표이사, 하동길 ㈜액트로 대표이사 등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680명이 세계시장 개척과 무역 증진에



앞장선 공로로 정부 포상 및 표창, 무역협회장상을 받았다.

특히 지역에서 가드레일 생산 기술을 자체 개발해 도로 안전시설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다스코(주)의 한상원 대표이사(사진)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국내 도로안전시설물 시장점유율 1위인 다스코는 국내에서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건설현장에 대해 교량난간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용현 기자

지역특산품 농수산물을 응용합니다

농수산물을 응용 캠페인!

영암군 기찬들소망물 **氣의고장 영암과 소비자를 잇는 직거래 장터**

장흥군 정남진 장흥 **농우** 정남진 장흥농우는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사육되며 청정한 공기를 마시고 최고 품질의 초지에서 건강한 자연의 맛을 즐기며 사육됩니다.

정남진 트로시장 장흥연합회 정남진트로시장협의회 061) 864-7002

신선함의 기준이 되다 하늘빛과 바다향을 가득 담은 상선함을 권합니다. www.wakorea.kr

정해연 · 활전복세트 · 전복가공제품 (파우치/통조림/생동/건조/사육전복)

원도전복주식회사 WandoAbalone Co., Ltd. | 카카오톡 ID: @원도전복주식회사

영암군 꽃은품은 무화과

장흥군과 장흥축협이 엄격하게 선택한 일품용 100% 한우 풀깃을 씹는 맛이 일품. 최고 영양 간식 - 정남진장흥 한우요독

장흥인우유목함산업회사 장흥축협 061) 864-6482

추천 >> **M 전남매일** 후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